

2021

고3 4모

2021년 시행 고3 4월 학평 국어 문학 김씨열행록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장 시랑의 아들과 혼인한 신부 김씨(주인공)는 신랑을 죽였다는 누명(주인공이 처한 위기 상황)을 벗기 위해 남장(남자 행색을 하고 있음)(남장 모티프)을 하고 집을 나가 어느 노파의 집(현재 주인공이 머물고 있는 곳)에 머물게 된다. 어느 날 김씨는 노파와 젊은 남자가 몰래 대화를 나누는 소리(김씨가 엿들은 것)를 듣게 된다.

이에(노파와 젊은 남자가 몰래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김씨가 들은 것) 신부(김씨, 호칭 변화를 반드시 기억)가 심히 의심하여 짐짓 노파를 위로하고 상급을 더하여 수작을 길게 하다가 왔던 사람(젊은 남자)이 누구이며, 밤늦게 왔다가 돌아간 연고(일이 벌어진 까닭)를 묻고, 수작(서로 말을 주고받음)은 무엇을 장황히 하였나 하는 것을 낱낱이 물으니, [노파가 그 도령은 차마 기망(남을 그럴듯하게 속임)(단어 뜻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할 길 없는지라,](노파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이 작품의 시점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임을 알 수 있음)(서술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길이 탄식하고 조용히 아뢰되,

“노파의 팔자가 기구하여 늦게야 남편을 여의고 자식이 없기로 양자를 들인즉,(노파의 상황 : 일찍 남편을 여의고 양자를 들임) 이 자식(노파의 양자)이 노모의 뜻을 받지 아니하여 가사를 불고(不顧)하고 주색잡기에만 눈을 뜨우고, 성행(性行)이 불량하여 싸움하기와 사람 치기를 즐기옵는 탓(노파의 양자가 행실이 불량함)에 항상 근심하옵더니, 저 안마을 큰 기와집은 장 시랑 댁(김씨의 시댁)이온데, 장 시랑의 전취 부인 연씨(김씨의 죽은 시어머니)는 천고에 없는 요조숙녀이옵더니, 자제(김씨의 남편) 한 분만 두고 불행히 일찍 상배(喪配)하시고(장 시랑이 아내의 죽음을 당함)(‘연씨가 죽었음을 알 수 있음)(내용 일치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후취 부인 유씨 또한 인물이 절등하옵고 재질이 능란하시오나, 다만 전실 자제(김씨의 남편)를 사랑하지 아니하옵기로 시랑(김씨의 시아버지)이 늘 근심하더니, 전실 자제의 혼인을 아무 곳 김씨 댁(김씨의 친정)으로 지내옵는데, 그 유씨 부인(반동 인물)(인물의 특성을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이 흥계를 품어 전실 자제(김씨의 남편)를 없애고 제 소생으로 종가를 삼으려 하여, 혼인날 밤에 신랑을 죽이기 위하여 돈을 많이 주고 자객을 구한즉, 불초한 자식(노파의 아들)이 대답하거늘, 노파가 아무리 만류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가서 신랑의 머리를 베어다가 유씨 부인에게 바쳤삽더니,(노파의 아들이 김씨의 남편을 죽였음을 알 수 있음) 그 뒤로 시랑의 행차가 바로 돌아오시매, 유씨가 황망공겁(慌忙恐慌)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 머리(김씨 남편의 머리)를 곳간 속 쌀독에 넣고 곳간 문을 잠가옵는데, 장 시랑이 돌아오시는 길로 대청에 작기(坐起)하옵시고 침식(잠자는 일과 먹는 일)을 전폐하신 채 이때까지 그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시니 어찌할 길이 없는지라.(진퇴양난) 이러므로 유씨만 근심할 뿐 아니오라 불초한 자식이 또한 겁을 내어 장차 멀리 도주하려는 뜻을 두고 노파를 작별하러 왔사온즉, 그 자식의 소행은 죽었사옵건만 자식이라 칭하던 것이 멀리 간다 하기로 부득이하여 수작하옵나니, 공겁(恐慌)한 심사와 처량한 심사를 진정하지 못하나이다.”

김씨가 주인 노파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듣고 나니 모골이 송연하고 머리칼이 곤두서는지라.(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냄)(서술상의 특징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마음을 진정하고 그 밤을 지낸 후에 날이 밝자 의복을 정제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노파에게서 떠나 바로 장 시랑 댁을 찾아가 시랑께 뵈옵기를 청하니, 시랑이 병을 핑계하고 손님 보기를 거절하거늘, 백단(百端)으로 아뢰어도 듣지 아니하는지라. 나중에는 아무 동네 아무 집 자식이 중대한 사단이 있

사옴기로 안으로 들어가 뵈옵기를 청하나이다 한즉, 그제야 들어오라 하거늘, 김씨가 **도령의 복색(남장)**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께 뵈옵고 아뢰기를,

“과연 제가 남자가 아니오라 궁천지통(窮天之痛)한 죄인 **자부(子婦)(며느리)**이옵기로, 상고하여 볼 일이 있사와 염치를 불고하옵고 왔사오니 닥의 곳간 문 열쇠를 주시오면 상고하올 일이 있삽나이다.”

유씨 부인이 이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魂飛魄散)(혼백이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뜻으로, 매우 놀라거나 혼이 나서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하여 어찌할 줄 모르나, 또한 곳간 문 열쇠를 내어놓지 아니할 수 없어 열쇠를 내어놓는지라.

신부가 열쇠를 가지고 급급히 곳간 문을 열고 쌀독을 헤치고 보니 신랑의 머리가 있는지라. **이를 보매 분하고 놀라운 것이야 어찌 다 형언하리오.(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그 머리를 안고 사랑의 앞에 나아가 **전후 사실(노파에게 들은 이야기)**을 낱낱이 아뢰고는,

“소녀 천고에 없는 누명을 씻기 위하여 불고사체(不顧事體)하고 이와 같이 사실을 밝혔사온즉, 이후의 일은 **존구(尊舅)(시아버지를 높이는 말)**의 처분이오니 소녀는 이제 본가(本家)로 돌아가겠나이다.”

인하여 하직하고 본가로 돌아와 친정 부모를 뵈옵고 전후 사실을 낱낱이 고하니, 그 부모가 생각하여도 만고에 없는 대변(大變)이요, 분하고 원통한 중에도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 딸을 더욱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더라.

- 작자 미상, '김씨열행록'

■ 핵심 정리

- 갈래 : 고전 소설, 가정 소설
- 시점 :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 가정사의 갈등을 유교적 교리를 통해 극복한 여인상
- 특징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남.
 - ② 한 여인의 열행이 나타나고 있음.
 - ③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을 활용함.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한 여인의 열행을 표현해놓은 윤리소설의 유형을 띠고 있다.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한 여인의 열행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일부 계모형 가정소설의 전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주인공 김씨가 혼인 첫날 밤 괴한이 신랑의 목을 베어가지고 달아나는 처참한 괴변을 당한 후, 그 누명을 벗겠다는 일념에서 남복을 하고 살인자를 찾아내어, 마침내 그 누명을 벗는다는 구성은 그 어느 것보다도 독창적이다.

또한 후처 유씨와 그녀의 소생을 방에 가두고 집에 불을 질러 태워 죽인 다음 아들의 머리와 자기의 전답 문서를 며느리인 김씨에게 보내고 방랑의 길을 떠난다는 구성 역시 독창적이다.

서지정보

저자 이재균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0701-6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1.04.21

가격 500원

값 500원

55710



9 791137 707016

ISBN 979-11-377-0701-6 (EPUB2)